



뿌리 깊은 안전 바람에 아니 밀세



주식회사 삼양사 울산공장

■ QESH(품질, 환경, 안전보건)의 World Best

(주)삼양사 울산공장은 울산에 건설된 최초의 산업시설로 50여 년간 울산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각종 선진기법과 창조적인 경영 혁신으로 환경관리 모범업체 선정 및 환경친화기업 지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3월 ISO9001, 14001 인증 취득, 2003년 5월 HACCP 인증 취득으로 보다 안전한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울산공장은 2007년 9월 OHSAS18001 신규인증을 취득과 식품안전측면에서 기존의 HACCP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인증 전환하였다. 이로써 모든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아 통합 운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과 현장 개선을 통하여 QESH(품질, 환경, 안전보건) World Best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모든 회사에서 그렇겠지만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초 안전의식입니다. 저희는 기초안전의식 확보 차원에서 안전의 생활화, 습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본인과 가족, 회사에 가져다 줍니다. 사고 없는 사업장 건설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이준구 환경안전팀장

■ 시스템 안전의 구축, OHSAS18001 인증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삼양사의 OHSAS18001 인증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증을 받아 걸모양을 장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존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무재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모두가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안전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고 OHSAS18001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도입 초, 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관리자들에게 OHSAS18001 도입 취지를 홍보하고, 특히 관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2차례에 걸쳐 2박3일 동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에 걸쳐 수차례 위험성평가를 진행, 각 공정에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OHSAS18001 시스템과 연계,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모두의 참여 노력과 경영자, 환경안전팀의 확고한 의지로 지난 9월에 일정보다 한 달여 앞당겨 OHSAS18001 인증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삼양사 울산공장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은 물론,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이 최우선, 작업 및 사용 중지명령 스티커 발부제

삼양사 직원이나 협력업체, 그 소속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이나 안전이 확보 되지 않은 장비의 운용 등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 안전환경팀원은 작업 및 사용 중지명령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 보호구의 미착용이나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와 더불어 개선 지시가 내려지지만 고소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시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 위험기계기구의 불안전 상태 하에서의 작업 등은 곧바로 작업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협력업체가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분기별 1회 실시되는 공사협력업체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작업 및 사용중지 스티커 발부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안전의식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 노·사합동안전점검 실시**
삼양사 울산공장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노·사합동안전점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분기별 1회로 진행되는 이 활동에는 공장장을 비롯해 환경안전팀, 노조위원장, 노조사무장 등 노·사를 대표하는 7~8명이 참가하여 점검 전 선정된 팀의 공정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정의 위험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으로 4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 점검단에서는 전문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각자의 시선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위험의 제거와 개선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가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토의된 내용들

은 환경안전팀에서 시정보고서로 작성되어 해당 부서에 통보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진다.

■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율안전**

무재해 4배수를 앞두고 있는 삼양사 울산공장은 월 1회 두 번째 목요일로 지정된 안전의 날 운영을 통해 자율안전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 날만큼은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비롯한 안전관리를 시행하는데, 책임자는 팀장은 물론 일반 사원까지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아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자율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듯 밑에서부터 실천하는 안전은 견고한 안전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다. 재해 없는 사업장, 주식회사 삼양사 울산공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

∴ Interview

■ **안전은 생명,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지나 온 수십 년, 우리 주식회사 삼양사는 인간존중 이념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업 이윤의 극대화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도 인간의 생명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며 안전은 완전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위험이 내재된 생산 설비나 환경개선에 아낌 없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번 OHSAS18001 도입을 통하여 새로운 각오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 울산공장
임 경 신 공장장